

## 성경 예언 해설집 <18회>

### 이사야

(지난호에 이어서)

#### 페르시아 왕 고레스

본문과 해설(사 45장)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 45장의 주인공 바사(페르사) 왕 고레스를 41장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가를 쉽게 증명할 수 있다. 41장의 동방 의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요 고레스는 이방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여호와께서 들어 쓴 사람이다.(4절) 본문 1절에서 기쁨부었다고 하였으므로 고레스와 하나님은 언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벨론 시대에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해온 유대 왕국 유민들을 해방시켜 본국으로 귀환시킨 사람이다. 또한 열국을 굴복시켰다고 본문에 언급하고도 동방 의인으로 해석하나 고레스는 세상 권세, 무력으로 일시적으로 중동과 지중해 연안국을 지배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41장의 의인은 비잔티 세력과의 맹렬한 싸움 끝에 열국을 굴복시킨 자요 고레스는 진리로 싸워서 얻은 권세가 아니요 육의 권세나 고레스 재위 기간 고레스를 대항한 세력이 없었다.

※ 고레스는 BC 5백20년경 사람이나 과거 인물이요 41장 주인공은 마지막 사람이니 지금까지 41장 기사대로 세상에 나타난 역사가 없었으니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한 자가 될 뿐이다.

53장의 기사를 예수교에서 예수가 세상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기사라고 구약 성경 중 이 기사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성경 전체적으로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언약이 없었즉 53장의 기사를 유적으로 해석하면 모순이다.

끝날에 이긴자 감람나무 선지자가 세상에 와서 악의 세력과 싸울 때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부활하는 장면

이 나오는데(계 11장) 실상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짓밟히는 것이다.

이사야의 기사 전체는 예루살렘의 광복(光復)을 위하여 새 세상을 찬미하였으니 이긴자가 예루살렘이요 그가 서있는 곳이 새 세상이요 예루살렘이니 유적 가나안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곳이니 끝까지 전쟁이 있을 뿐이다.

이사야의 예언을 상세히 언급하려면 지면이 부족하여 경미한 부분은 생략한다.

#### 만민이 동방 한국으로 돌아옴

본 문(사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나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잡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列邦)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다.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喜色)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중략)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矜恤)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하략)

#### 해설

위의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하는 유대교의 유대인이 긴 세월 이방 민족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영광의 시대가 돌아온다고 믿고 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유대교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세워지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오고 만민들도 모여 와 여호와께 경배한다고 믿고 있다. 이사야 2장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유대교는 위의 말씀은 유대인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장면이라고 억지 해석을 한다. 예수교는 그들의 종말론에서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되므로 평화가 없고 땅위의 낙원은 인정하지 않으니 본문의 말씀을 그들은 비유로 해석하고 하늘나라 광경으로 말을 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예언을 해설하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선민과 메시아를 출현시키는 자손은 유대 지파나 팔레스타인이냐 한반도냐 하는 것이다. 사사 시대 가나안을 떠나 동방으로 인도된 단자손의 정체가 이 시대 세상에 알려지고 마지막 메시아가 동방 의인으로(사 41장), 감람나무 선지자로(계 11장,12장) 임하여 철장으로 원수 마귀를 박멸하고 생명 길을 열어 놓으니 세계 평화가 돌아오고 메시아가 갠신 한반도로 만민이 돌아오되 금은보화를 싣고 돌아온다. 그 시대는 신령한 시대니 육체를 벗어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고로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으니 그 시대는 밤이 없고 영광의 빛이 햇빛보다 7배나 밝으므로 태양은 지금의 태양 아래 달과 같아서 아무 필요가 없다. 무궁한 영생의 세계이니 생명 과일을 먹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다.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같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예언한 사람이 없고 다른 선지자와 다른 점은 다른 선지자의 종말론은 심판과 재앙을 강조하였으나 이사야는 재앙보다 영원한 평화, 유포피어를 말하였으니 동방 한반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한 사람도 이사야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선지자들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왕국의 운명을 깊이 근심하면서 애국심이 강하였다. 여호와와 장계를 받아 왕국이 망하여도 다시 회복될 것을 믿었으니 선지자들은 유대 왕국이 망하였다가 시온의 영광이 다시 빛날 때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기록하고로 유대인들이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방민과 싸우고 있다. 이사야가 조국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하여 예언하였으나 하나님의 축복이 한반도로 옮겨진고로 예언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이스라엘과 같이 상고시대부터 현대까지 강대국들에게 짓밟힌 관계로 수년의 역사가 계속되었으나 메시아가 오신 이후 국운이 융성하여 세계 만방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 에스겔

#### 중동 전쟁에 소련군 집결

본 문(겔 38장, 39장)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人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중략) 내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날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나라.(하략)(겔 38장)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아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트리니 나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 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위에 었드려지리라.(중략)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兵器)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森林)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중략)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달 동안 그들을 장사하리라.(중략)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하략)(겔 39장)

#### 해설

바벨론이 유대 왕국을 침공하였을 때 1차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에스겔은 제사장 겸 선지자로 망국의 한을 품고 여호와께 호소하는 가운데 받은 계시를 기록하였다.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므로 여호와께 호소하는 가운데 받은 계시를 기록하였다.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므로 여호와께 호소하는 가운데 받은 계시를 기록하였다.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므로 여호와께 호소하는 가운데 받은 계시를 기록하였다.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므로 여호와께 호소하는 가운데 받은 계시를 기록하였다.

에스겔의 예언 가운데 핵심이 되는 세계적 대사건은 38장과 39장의 내용이니 끝날에 극한 북방 민족인 곡이 주동이 되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연합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가 여호와와 심판으로 전멸당한다고 기록하였다. 현대 무기는 철제로 되어 있으니 무기를 불태울 수 없는데 무기를 7년 동안 이스라엘이 화목(火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고 재앙으로 죽은 군대의 시체를 7개월 동안 장사한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기와 시체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태산 같은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심판을 가감없이 인용한다면 마지막 심판, 지구상의 인류의 3분의 2가 재앙으로 죽는다는 기록도 있으니 지구상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명시하였다.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이스라엘 무

것도 대전쟁이라고 계시록 16장에 기록하였으니 에스겔 38장, 39장과 내용이 같은 것이다.

북방 민족 곡과 마곡 도갈마는 소련땅이니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은 공산군이 주동이 되어 중동 전쟁을 일으킨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긴자가 오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공산당이 망하지 않았다면 아랍 세계와 연계하여 남진 정책을 꾀하는 소련은 서방 세계를 위협하였을 것이다. 90년 걸프(중동전) 전쟁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소란도 피웠다. 걸프전 당시는 이미 이긴자께서 공산당을 멸하고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소련은 서방 세계에 동조하므로 아랍 진영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서방 다국적군을 대항할 수 없었다.

만일 냉전 시대 공산 진영이 단결하였더라면 중동 국가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드시 참전할 것이니 세계 대전이 폭발하여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응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수단을 꺾은고로 중동전은 소규모로 끝난 것이다.

에스겔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애국심이 강하고 유대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세계 대전을 치른 후 시온의 영광이 온다고 강조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상이다.

에스겔이 과학 시대를 알 수 없는고로 상고 시대 무기인 말, 방패, 활, 살, 창 등 무기를 사용한 무기로 표시하였다.

이긴자 시대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니 예언은 사장(死藏)되었다. 이사야가 예언한(사 2장) 평화가 찾아왔으니 창과 같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보습과 낫으로 개조되어 사용하리라.

예수의 예언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고로 지구는 전쟁과 재앙으로 파멸된다고 강조하였으니 천지는 폐하여도 자신의 말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말하였으나 거짓말이 된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차승도



###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43>

#### 첨성대(瞻星臺)와 미륵불(彌勒佛)\_ 2-4

(지난호에 이어서)

첨성대는 높이 9.108m, 밑지름 4.93m, 윗지름 2.85m, 밑에서 4.16m 되는 곳에 정남쪽으로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창문을 네 변 모양의 구조이다. 첨성대에 대한 기록은 일연이 기록한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 "선덕여왕 대에 돌을 다듬어서 첨성대를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첨성대가 불교에서 주장하는 최고의 이상향으로 제시되는 수미산(須彌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첨성대는 처음부터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들이 행하였던 제천사상과 불교의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축조된 신전(神廟)의 개념이 있으며 고도의 예술적 결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첨성대는 그 외형부터 불교의 수미산도(須彌山圖)를 참조하여 보는 것과 같이 모양이 같은 것이다. 즉 이러한 사실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첨성대의 축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편의 사상 역시 불교의 수미산도와 우리 민족의 제천 의식과 동일한 것이다.

첨성대의 제일 윗부분, 즉 정자석은 그

모양이 우물 『井』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첨성대의 제일 상층인 28층에 우물을 상징하는 정자석을 놓은 것은 『하늘의 우물(天井)』이라는 뜻이며 하늘의 우물을 통하여 미래의 구세주인 주인공께서 오실 것을 알고 첨성대를 건설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앞장의 수미산의 모습을 그린 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33천인 도솔천의 내원궁이 보이고 이 내원궁에 있는 용화수(龍華樹)가 보이는데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부처님께서 이 용화수 아래에서 도를 닦으신 후 인간계(人間界)로 하강(下降)하여 강림(降臨)하시는데 이때는 수미산 정상에 한 가운데 있는 수미산정(須彌山井)을 통하여 왕림(枉臨)하신다고 한다.

이런 이치로 첨성대는 전체의 모습이 수미산의 모양을 상징하는 형태로 축조되었으며 수미산의 정상에 있는 천정(天井), 즉 수미산정(須彌山井)을 상징하는 형태가 첨성대에서는 정자석이요 정자석이 곧 수미산의 우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물정(井)자 형태로 얹힌 것이다.

또한 사천 우축의 첨성대의 북쪽 면을 자세히 보면 기초석을 뺀 나머지부터 정자석까지 탑은 28층으로 둘로 쌓아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28수(脣) 즉 별을 상징하는데 한자에서 별이라는 것이 곧 북두칠성을 의미하므로 첨성대의 외관은 별

의 상징인 28층으로 축조된 것이다.

또 첨성대의 출구는 남쪽을 향하여 오직 한곳만 있다. 이는 현재의 대통령 관저가 있는 청와대나 조선조의 왕궁이나 큰 사찰의 대웅전 등 절대 권력 내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이 모든 것은 북쪽을 향해 배치가 된다. 그리고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신하된 자들 중 귀양이나 외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임금의 어명을 받을 때는 북향재배(北向再拜), 즉 북쪽을 향해 절을 한 후 어명을 받듯이 우주의 절대자의 존재가 인간계로 하강하는데 북쪽에서 나오시므로 출구를 남쪽으로 만든 것이다.\*

###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44>

#### 수미산(須彌山)과 첨성대(瞻星臺)와 감정리(坎井里)\_ 2-5

수미산(須彌山)에 있는 도솔천(兜率天) 내원궁(內院宮)에 계시던 미륵부처님(하남이)이 드디어 수미산에 있는 수미정(須彌井)이라는 하늘의 우물을 통해 지상에 있는 수미정(須彌井)과 연결되어 있던 곳, 즉 땅의 우물로 불리는 곳에서 출생한다는 하늘이 숨기고 땅의 비밀이 천장지비(天藏地秘)인 감정리(坎井里)에서 출생과 연결된다는 비밀을 누가 알겠는가?

김포 조현 선생 우저서원외 위치한 감정리는 지금은 김포시 감정동으로 행정

지역이 바뀌었으니 감정동이 미륵부처님께서 출생하신 탄생지이며, 미륵부처님의 생가는 우저서원의 근교에 있다.

현재는 아파트촌이 감정동을 둘러싸여 있지만 길지는 트림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경주 첨성대와 불교 수미산 그리고 미륵부처님(하남이)께서 탄생한 탄생지까지의 연결고리를 살펴봤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선덕여왕이 잘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을 살펴보면 대단한 통찰력과 예지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덕여왕은 불교에 심취하여 결국 천오백년 뒤에 후손들에게 한민족의 근지와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한 분이다.

다음은 인터넷 발췌문 중 일부다. 첨성대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선 말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도 천문대(天文臺), 즉 천문관측을 하는 곳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광복 이후에 갑자기 이에 대한 사실이 제기되며, 제단(祭壇)·기념물·불교 관계 건축물 등의 여러 가지 설과 이견이 속출되었다. 이런 설에 대하여 종전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천문대로 해석하는 연구도 물론 진행되었다.



우저서원(牛渚書院)\_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하늘이 숨기고 땅의 비밀, 천장지비(天藏地秘)인 감정리(坎井里)

이설들이 나온 이유의 하나는 현존하는 첨성대가 평지(平地)에 있다는 것. 첨성대 자체의 구조상 그 위로 오르내리는 통로가 매우 불편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 환경은 나라마다 다른 첨성대 또는 첨성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고대천문학은 크게 천문(天文)과 역법(曆法)으로 양분된다. 중국의 사서(史書)에도 『역지(曆志)』 또는 『율력지(律曆

志)』와 『천문지(天文志)』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다. 천문관측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째는 역법을 만들기 위한 태양·달·행성의 운행을 관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점성(占星)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항성(恒星)의 배치로 정해진 별자리(星座)를 지방 또는 국가로 분배하였다.\*

明鍾